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된다.

(행9:31)

부제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칭송 받는 교회로

(행2:47)

목회방향

1.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
2. 전도와 양육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2017년 1월 21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벰후 3:8-18

제목 :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3)

말씀 :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벰후 3:12-13)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전주의 인사말을 되새기면서 하시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잘 사시고 오셨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비는 말씀이 잘 이루어지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잘 붙잡으려면 저는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수일이 지나도록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안식일은 다가왔지 기도할 장소도 없어서 안식일 날 기도하러 강가에 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여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여자들 가운데 루디아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을 청종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 16:14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시면 성령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따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이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인가요? 전전주 두주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안에 거하는 삶이 잘사는 일입니다. 죄인이지만 그

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속에 오점과 비난 받을 일들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혈의 은총을 입어서 잘못을 용서 받고 평강을 누리는 삶이 잘 사는 일입니다.

또한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는 삶이 잘 사는 일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경건이란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만나게 되면 외면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의 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새 하늘을 바라보는 삶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마귀가 하는 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파괴시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일입니까? 이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미혹하는 영의 도전입니다. 특히 영지주의 자들은 인간의 육체는 악하다고 주장하면서 육체로 짓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빠져 들어간 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약 우리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 이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아마 잠도 설칠 것입니다.

또한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헛된 가르침이 있었

습니다.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후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하나님 이 창조한 그대로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있다면 주님이 너희가 본대로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왜 오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편지를 제 멋대로 억지로 풀면서 거짓 가르침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런 현실을 본 베드로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주님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 다고 말한 것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벰후3:1-2절입니다. "1.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전서 후서)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3.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과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성오 목사와 주의 종들이 가르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두 가지를 가르치면서 미혹을 받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첫째는 시간에 대한 계산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법과 틀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주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도둑처럼 갑자기 임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면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니 그런 일에 미혹을 받지 말라, 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간교에서 이길 수 있는 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16-17절에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구절에서 누가 미혹을 당한다고 말합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무식하다"는 것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uninstructed)" 이란 의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앙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른 일에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굳세지 못한 자들"이란 "불안정한 사람들" 이란 의미입니다.

사람이 언제 불안정해집니까?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해집니다. 가르침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마귀가 가져오는 미혹의 영에 쉽게 빠지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늘 불안한 자들을 노립니다. 그런 자들은 마귀의 먹이 감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발생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불안할 때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면 이단이 판을 칩니다. 불안할 때 마귀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17절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 가르침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굳건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미혹의 영에서 이기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승리하

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유언의 말을 한번 곰곰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딤후 4:7-8입니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믿는 바를 흔들리지 않고 확신한 그 믿음, 주님이 곁에서 항상 지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찬송도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미혹의 영에서 승리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왜 거짓의 교사 미혹의 영에 빠집니까? 그들이 무식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앙에 대해서 배우려는 데 즉 신앙의 성장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장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요? 베드로는 너희들이 미혹의 영에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믿음이 자라는 일에 힘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갓난아이처럼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나지 않으면 지켜보는 모든 이에게 근심입니다. 특히 부모들에게는 큰 근심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보면 기쁨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면서 첫발을 내딛을 때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쁩니까? 환호성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잘 자라나야 기쁩니다.

손녀가 16개월 되었습니다. 이즈음은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부부와 영상 카톡으로 인사를 나누는 게 일과입니다. 딸이 있는 프로리다와 한국의 시차는 14시간입니다. 이곳 밤 11시면 그곳은 아침 9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 카톡으로 인사를 하면 저희들은 잠 잘 시간입니다. 새벽기도를 인도하

는 저에게는 잠을 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카톡으로 영상통화가 옵니다. 아침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톡 영상통화를 하고 잡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가 손녀에게 하모니카로 곡을 두 개 불러줍니다. 한 곡은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앵두 따다 실에 꿰어 목에다 걸고."입니다. 한국에 왔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곡은 "ABCDEFGG"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서 불러줍니다. ABCDEFG노래는 멜로디가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다게 빛나네"의 멜로디와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다 보니 연주가 끝나면 박수를 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손녀딸이 저를 보면 손을 입에다 갖다 대고 "푸푸"합니다. 제가 "푸 하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딸과 사위가 손녀를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글썄 손녀가 저와 비슷하게 생긴 대머리 아저씨를 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 아빠보고 손을 입에다 가져가면서 "푸푸"하더랍니다. 그 아이에게는 영상에만 보던 대머리 하비와 비슷한 대머리는 모두 "푸푸하비"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기쁜 것은 그만큼 그 아이가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짓 영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는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에 관심이 없어서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을 받는 것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편지에도 믿음이 자라날 것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2:1-3절입니다.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믿음을 자라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젖을 먹어야 갓난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가장 어지럽히고 있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미혹의 영으로 성도들을 많이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미혹을 받습니까? 믿음이 굳

세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 신앙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혹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악한 미혹의 영이 나타납니다. 정말 지식 안에서 자라 분별력으로 그런데 미혹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사는 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의 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사는 길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다 나의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니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철저히 금욕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 생각해 보면 정말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껏 산 것도 다 은혜입니다. 아픈 것도 은혜요 넘어진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입니다. 장사도 은혜로 합니다. 자녀 교육도 은혜로 합니다. 직장생활도 은혜로 합니다. 자녀 결혼 준비도 은혜로 합니다. 교회봉사도 다 은혜로 합니다. 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은혜로 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앞으로의 삶도 다 은혜로 인도해 줄 것을 믿는 그 은혜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미혹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거하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태도를 보이시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배운 교훈에 굳게 서서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강조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믿음이 자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런 삶을 살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지어다."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